

■ 지방선거 핫코너

이병완·정찬용 '후보 단일화' 합의

이병완(왼쪽)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후보와 정찬용(오른쪽)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3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국민적 심판과 지난 20여 년간 비판과 견제가 실종되고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민주당의 지역 독점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며 "후보단일화 실무기구 구성과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광주시민과 함께 민주개혁세력의 대단결과 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단일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선 '전남교육 5대정책' 비전 발표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클린 전남교육 도민위원회 구성 ▲마케팅 교육감제 ▲교육 혁신 기법 도입 ▲바우처 사업 추진 ▲위킴방 정책 등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인사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클린 전남교육 도민위원회'를 구성, 도민에게 인사권을 모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세일즈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남 '동부권에 이동 교육감실 설치'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3일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에 이동 교육감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전남의 교육행정시설이 무안 등 서남권에 편중돼 있어 동부권 주민의 경우 승용차 등으로 2~3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동부권 이동 교육감실을 통해 1주일에 1회 이상씩 현장에서 결재, 면담 등 교육현안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동부권 이동 교육감실이 효과를 거둘 경우 중부권 등에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영 '예비후보 사퇴 안한다'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예비후보를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 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5월이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격정대 말한 것"이라며 "예비후보를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 사퇴 및 지사직 복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회 복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다.



윤난실, 민노당에 반민주당 선거연합 제안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반(反) 민주당 선거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장원섭 민노당 광주시장 후보에게 정치회담을 제안했다. 윤 예비후보는 13일 "최근 벌어진 4인 선거구 분할이나 '진흥당 경선' 등 민주당의 일당독점과 안하무인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면서 "장 후보와 정치회담을 통해 진보 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문제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형석 '동북아 사이언스 파크 조성'

이형석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가전로봇산업, 클린 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광산업 등은 광주 경제 중심축을 만들어 갈 북구의 역점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북아 사이언스 파크 조성은 미약한 광주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사업"이라며 "각종 산업시설의 조기유치와 완공을 이끌어 내 지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내겠다"고 밝혔다.



송광운 '미래형 유망기업 100개 육성'

송광운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첨단 산업단지 2단계 공사준공과 R&D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매출과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경영과 판매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면 알차고 강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맞춤형 패키지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통해 북구를 중소기업육성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기수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들 사퇴해야'

강기수 민주당 동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당원 입당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연루돼 물의를 빚은 전주에 예비후보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김선옥 예비후보 등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는 "시민의 공복이 돼야 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손발이 되어 온갖 불법선거를 벌이고 서구청이 두번이나 압수수색 된 것은 매우 경악할 일"이라며 "불법선거 백화점이라는 말을 듣는 민주당 서구청장 2명의 예비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향득 '여성정책 행복공약' 발표

주향득 무소속 나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민생정치 실천을 위한 여성정책 행복공약'을 발표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주시가 책임지는 좋은 여성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주 후보는 ▲전업주부 일자리 1천 개 확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30대 미취업·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여성가장을 위한 무보증 무이자 창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



절단면 너덜너덜... 외부 충격에 무게

■함미 상태로 본 천안함 침몰원인은 연돌 사라지고 함포 그대로 어뢰 2발·미사일 2기 유실

천안함 함미의 상부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 침몰 원인을 가능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2일 공개된 천안함 함미는 주포와 부포, 추적레이더실은 비교적 온전했지만 절단면 근처에 있는 연돌(연통)이 통째로 날아가 보이지 않았다. 연돌 바로 뒷부분에 있어야 할 하준 미사일 발사관과 경어뢰 발사관 1문도 자취를 감췄다.

일단 갑판 위의 주·부포와 추적레이더실의 상태로 봐서는 함정 아래로부터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다만 연돌 등 절단면 부근에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거나 미사일 발사관 등이 사라진 점으로 미뤄 좌초설과 피로파괴설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함초에 의한 절단이라면 함정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며, 연돌까지 날아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절단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하고 날카롭게 찢어진 것은, 응집부분을 따라 비교적 매끈하게 잘려야 할 피로 파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함정을 두 동강 낼 정도의 강한 폭발을 일으키려면 주포와 부포 바로 아래 있는 탄약고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지만 주·부포가 말짱해 내부 폭발 가능성도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경어뢰 2발이 실려있는 어뢰 발사관 1문과 하준미사일 2기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바로 옆의 다른 어뢰와 미사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 역시 천안함 내부 무기체계에 의한 폭발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내부 폭발이나 좌초, 피로파괴는 일단 침몰 원인의 선상에서 조심스레 배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편이다.

남은 것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인데, 바로 어뢰와 기뢰에 의한 폭발이 그것이다. 군 당국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을 근거로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공개된 함정 상부의 절단면 모양이다. 언론 카메라에 잡힌 절단면 상부의 모습은 불규칙하고 날카롭게 찢겨졌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뭔가 강력한 외부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어뢰나 기뢰가 함정 바로 밑 수중에서 터져 버블제트를 일으켜 선체를 동강냈거나 직접 선체 하부를 가격해 그 충격으로 종일장처럼 찢겨졌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버블제트 충격에 의해서는 선체가 비교적 직선형태로 잘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버블제트나 직접 타격이나를 가리키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1천200t급 군함 바닥에 가한 충격으로 절단면 상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라면 중어뢰 수준의 강력한 타격수단이 동원됐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절단면 부근에 우뚝 솟아있어야 할 연돌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도 당시 충격이 엄청났음을 방증한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경선 물밑경쟁

6·2 지방선거 공천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겨냥한 여야 정치인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새로 선출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18대 후반기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개헌 논의 등 절박한 현안을 다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4선의 이석현, 3선의 강봉균·김부겸·박병석 의원, 재선의 박지원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다음달 7일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현재 김부겸, 박지원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다소 앞서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했지만 단시간에 상상 이상의 득표



<박지원>



<정의화>

민주당, 박지원·강봉균 등 5파전 한나라, 정의화·이병석 등 도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친이(친이명박)계인 4선의 정의화 의원과 3선의 이병석 의원 그리고 중립 성향의 4선 황우여, 3선인 이주영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원내대표 경선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병석 의원은 당내 주류인 친이계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 친이계인 4선의 정의화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면서도 계파간 갈등에 매몰되지 않고 화합을 이끌어낼 화합형 리더이자,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령탑이 필요하다"며 도전 의사를 밝혔다. 중립 성향인 황우여 의원과 이주영 의원도 계파 화합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2010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급금 50%... COSMOENG [주]코스모이앤지 T. 080-7272-7000

SINCE 1982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70년 방수제 100% 완성률!!